

혁신당, '부패제로 전북선대위' 출정

본격 지선 체제 돌입 "건강한 경쟁 등 필요"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제로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혁신당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장식 의원과 위원인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 임형택 익산시장 후보, 도·시 군의원 후보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 정치가 민주당 일당 독점구조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상실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도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는 "견제 받지 않는 독립 권력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각종 부패 의혹과 논란이 제기된 후보들을 발다른 사과나 반성 없이 다시 공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 뒤에 숨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며 "전북 정치에도 건강한 경쟁과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일부 현직 단체장과 후보들을 겨냥해 불법 정치자금, 특혜 의혹, 이해 충돌 논란, 부동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도민들이 후보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제로 전북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해 신장식 국회의원은 "사실에 입각한 문제 제기와 공직자 검증은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전북 지방정치 구조와 비례대표 선거 제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전북도의회 전체 의석 가운데 무투표 당선 비율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치 개혁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 약속을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경쟁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 "현행 제도는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며 "민주당이

70~80% 득표를 하더라도 추가 득표는 사실상 사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표표를 주는 것보다 혁신당에 정당 투표를 해주어야 국민의 의사를 막고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다"며 "혁신당이 최소 2석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당이 60% 이상 득표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표는 의미 없이 사라질 사표 가능성이 있다"며 "도민들이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호남 민심과 관련해서는 "전북과 전남 곳곳에서 민심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며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완전히 버리려는 것은 아니지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신장식 선대위 위

원장은 분석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호남 정치 혁신의 도구이자 회초리로 사용돼 달라며 '부패와 특권의 정치를 끝내고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전북 정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와 도청 직원들의 내란 고발 관련 입장도 언급했다. 정도상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전북도당 차원의 공식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정도상 도당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전국에서 기자들이 많은 문의를 해오고 과도한 해석과 오해 우려가 있어 얼마 후에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무소속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가 2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 도지사 후보 측과의 정책 연대를 공식화하고 있다.

"안호영의 꿈 이어가겠다"

무소속 김관영 도지사 후보, 정책 연대 선언

'도민 후보'를 지임하며 무소속으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20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 도지사 후보 측과의 정책 연대를 공식화하며 "안호영의 꿈은 김관영 2기 도청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안호영 전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설남우 전 주대 교수와 선거를 총괄했던 '호영호제' 캠프 책임자 김호서 전 전북도 의회의장이 함께 자리했다.

김 후보는 "안호영 의원과 김관영의 정책 연대는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 도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는 경쟁할 수 있지만 전북의 미래만큼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을 언급하며 "저에 대한 갑작스러운 제명과 불공정 경선 강행으로 상황이 크게 흔들렸다"며 "안호영 의원 역시 편파 갑질과 이중 잣대, 불공정 경선을 문제 삼아 경선 연기를 요구하고 이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해 단식투쟁까지 이어 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북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공정과 상식을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안 전 후보가 제시한 주요 정책을 김관영 2기 도청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수용 의사를 밝힌 주요 정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이전과 새만금 RE100 기반 반도체·AI 산업 전략 △햇빛 연금마을 1,000개 조성 등 분산에너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KAIST 남원 AI 공공의료캠퍼스 조성 △전북 아이 미래 기반펀드 △전북 광역급행철도(JBX) 구축 △중부권 시대 발전 전략 등이다.

특히 새만금 산업 전략과 관련해 김 후보는 "전북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중심지"라며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새만금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가 대기업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전북형 재생에너지 순환체계 구축 의지도 강조했다.

남원 AI 공공의료 캠퍼스 구상에 대해서는 "남원을 세계 최초 AI 공공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AI 기본 의료 시대를 전북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 말미에 "도민의 선택으로 당당하게 승리해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이재명 정부, 안호영 의원과 함께 전북의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방주도 성장 실현할 민주당 지방정부 반드시 만들어야"

민주 이원택 도지사·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도민에 지지 호소

"이재명 정부 성공 완성은 마지막 퍼즐... 전북 대전환 문 열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원택 후보와 같은 당 전주시장 조지훈 후보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원팀의 승리'를 선언하며 "전북의 성공을 이끌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이날 "빛의 혁명이 만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이번 지방선거"라며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할 민주당 지방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에 나선 조지훈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편인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동반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북은 지난 대선에서 82.6%라는 압도적 지지를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수도권·

영남·호남 내부로부터의 '삼중 소외'를 언급하며 전북 발전을 약속했고,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원 투자 등 전북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이제는 실행과 집행의 시간"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민주당 원팀이 전북에 열린 기회의 문을 제대로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후보 역시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가늠할 결정적 시간"이라며 "지역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들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성동구청장 3선 출신 정원우 후보 △대전 구청장 출신 민형배 후보 △인천 토박이 박찬대 후보 △부산 북구청장 선거 낙선 이후 재도전에 나선 전재수 후보 등을 언급하며 "지역을 잘 아는 민주당 후보들의 등장은 주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우선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와 같은 당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어 "이원택과 조지훈은 지역 골목 골목을 누비며 전북 현안을 해결해 온 후보들"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전북 출신 국무위원,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 대전환의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민주당 원팀의 승리로 전북과 전주를 미래 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수 없는 현실로 만들겠다"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특별히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평화·평등·생태의 대전환" |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 지지 호소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의 선거대책 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은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일당독점 타파와 평화·평등·생태의 전북 대전환을 위해 도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내란 세력 퇴진 이후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공화국과 사회 대개혁이었다"며 "그러나 친자본적 보수 일당 구조 속에서 지역 시민들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년 넘게 지속된 전북의 일당 독점 정치 속에서 주민들의 삶과 기본 권은 개발 중심 성장주의에 밀려났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 새만금 개발 중심 정책, 초고압 송전선로 문제,



평화·평등·생태의 사회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사회대전환 전북연대회의의 선거대책 위원회에는 노동당 전북도당(비), 전북 녹색당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책방 토박이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전북도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후보인 임소희, 정의당 전북도당 비례대표 전북도의원 후보인 강윤희, 전주시의회 차선거구(우아·2동, 호성동) 후보 오현숙, 전주시의회 마선거구(삼천1·2·3동, 호재1동) 후보 한승우 등이 참석해 군소정당 후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장정에 나선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출정식이 범추지 않는 전북을 향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담은 자리라고 밝혔다.

출정식은 21일 오전 10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직능단체와 지역 조직은 물론 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출정식을 통해 "전북의 선택은 결국 도민이 한다"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기대지 않고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도지사 후보 출정식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서

무소속 기호 7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1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장정에 나선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출정식이 범추지 않는 전북을 향한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하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담은 자리라고 밝혔다.

출정식은 21일 오전 10시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되며, 직능단체와 지역 조직은 물론 여성·청년·노인·장애인 등 각계각층 도민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출정식을 통해 "전북의 선택은 결국 도민이 한다"며 "갈등과 분열의 정치에 기대지 않고 도민과 함께 전북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밝힌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호영호제, 도민 후보 김관영 지지 선언"

안호영 후보 자원봉사 단체 회원들 20명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에서 패한 안호영 후보를 돕던 자원봉사 단체인 '호영호제' 서포터즈 김호서 상임대표와 핵심 회원 20여 명은 20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민주당 정권체 체제의 사단화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며 '도민 후보'를 지임하는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김호서 상임대표가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영호제"는 이제 김관영과 함께한다"며 "민심을 외면한 중앙당의 사당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북의 자존심과 공정,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후보에게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12시간 만에 전격 제명된 것은 민주당



의와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라며 "정권체 대표 체제의 당 지도부가 자기 사당 심기와 대표 연임을 위해 당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영호제'의 김호서 상임대표는 기자회견과 질의응답에서 "호영호제는 전북 14개 시·군에 약 9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당수 회원이 김관영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도시·교통·환경분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20일 지역발전 정책공약 여섯 번째 순서로 '도시·교통·환경 분야' 세부 공약을 발표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시민 중심의 친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은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 (수변형 복합레크리에이션) △구 경찰서 부지 활용 시민편의타운 조성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 △연지시장 활성화 사업 △연지동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정읍읍 감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저감형 축산지원 에너지 전환사업(우분 연료화) 추진 △유기성 자원 에너지화 시설 구축(바이오 가스화) △국립순천원 진입 기반시설 조성 △전북자치도 제호 환경교육도시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날 발표한 도시·교통·환경 분야